

「The 100 현장경청 - 제 59차 프로젝트」 석유 위기, 신재생에너지 대전환 기회로 삼는다 - 박홍근 장관, '국내산 태양전지 진천 소재 제조업체 방문' -

- 추경에 신규 반영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375억원) 등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추경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
- 향후에도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주력
-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하여 선수단 격려 및 애로사항 청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월 8일(금) 진천에 위치한 국내산 태양광 셀 제조기업인 한화 솔루션 큐셀*을 방문하여 태양전지(셀)와 모듈 등 생산 현장을 시찰하고, 관련 업계 및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99년 설립, 연 매출 5.8조원('24년 기준), 한화 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부문 기업

금일 간담회는 국내산 태양광 패널을 제조하는 국내기업과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건의 사항과 정책 아이디어 등 현장의 살아 숨쉬는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8(금), 10:00 ~ 12:00 / 한화솔루션 큐셀 진천공장(충북 진천군)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장관, 사회예산심의관, 기후부 재생에너지정책관 등
(기업) 한화솔루션 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유관기관) 경기도청 에너지산업과장,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한국재생에너지총연합회, 한국태양광공사협회 등

박홍근 장관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원 공급망의 취약점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은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확보와 국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이라는 정책적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베란다 태양광 보급 사업 외에도 햇빛소득마을 등 **금번 추경에 반영된 약 6천억원 규모의 에너지 전환 관련 사업들이 연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하였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차세대 태양전지 등 **국내 업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박홍근 장관은 “지난 정부를 거치며 **태양광 셀 국내 점유율이 약 50%에서 4% 대까지 떨어지는 등 생태계가 훼손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국내 업체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고, 우수 제품의 시공·보급·확산의 선순환 구조 확립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태양광 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제조업체-민간협회 등 **국가 차원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박홍근 장관은 이날 제기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 검토하여 **향후 '27년 예산안 편성 시에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외에도 R&D, 금융지원 등 국내 생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현장을 찾아 다양한 아이디어를 듣는 일은 언제나 가슴 뛰는 경험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권자 국민의 뜻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기 위해 **쉽없이 현장을 찾아 의미있는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오후 박홍근 장관은 '26년 9월 개최 예정인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하여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였다. 특히, 박장관은 2전 3기 투혼의 역전극으로 전 국민에게 감동을 준 최가온 선수의 값진 동계올림픽 금메달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열악한 훈련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선적으로 **금번 추경에 사계절 동계 훈련이 가능한 '에어매트' 구축 사업을 30억원 반영**했다고 하면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과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 | | | |
|-------|-------------------|-----|-----|--------------------------|
| 담당 부서 | 예산실 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김의영 (044-214-2570) |
| | | 담당자 | 사무관 | 김기문 (krrard419@korea.kr) |
| | 예산실 문화체육관광예산과 | 책임자 | 과 장 | 박성주 (044-214-2550) |
| | | 담당자 | 사무관 | 윤진 (312jin@korea.kr) |

